


제12호 북토크 톡!톡!톡!

발행일 : 2014.12.31

발행인 : 북토크톡

12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p. : 3학년 1학기 사회 단원별 색인
- 2p.~ 4p. : 교과관련도서 소개
- 5p. : 문학 그림책 서평 - 얼음 땀!
- 6p. : 비문학 그림책 서평 - 문을 열어!
- 7p. : 한국 고전 - 옹고집전
- 8p. : 외국 고전 - 80일간의 세계일주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학기/단원	도서명(출판사)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고장의 위치 2. 지도에 쓰이는 약속 3. 우리 고장의 모습 4.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생활 속 사회탐구 플러스(그레이트 북스)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교원 Allstory) 눈으로 보는 통합교과(교원 Allstory) 위대한 유산 한권으로 읽는 교과서(한국 퍼킨스) 탄탄 우리 문화(여원미디어) 또랑또랑 사회탐구 동화(한국차일드아카데미) 어린이 지식 그림책@통(웅진다책) 미국초등학교가 배우는 지리(창해) 어린이 비주얼 과학-지도(릭스키즈) 일과 도구(길벗어린이) 우리 동네 슈퍼맨(창비) 알면 보물 모르면 고물 지도(아르볼) 맛있는 과학 33 : 자연재해(주니어김영사)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1. 생활 속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2.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3.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4.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	생활 속 사회탐구 플러스(그레이트 북스) 눈으로 보는 통합교과(교원 Allstory) 또랑또랑 사회탐구 동화(한국차일드아카데미) 어린이 지식 그림책@통(웅진다책) 옛사람들의 교통과 통신(주니어중앙)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아르볼) 우리는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창솔) 달구지랑 햇불이랑 옛날의 교통통신(해와나무) 바퀴에서 우주선까지, 연기에서 인터넷까지(북멘토) 깜짝 과학이 이렇게 쉬웠어 4, 11, 13(주니어랜덤)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 1. 우리 고장의 중심지 2. 교통이 편리한 곳 3. 달라지는 중심지의 모습 4. 새로 생긴 중심지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교원 Allstory) 눈으로 보는 통합교과(교원 Allstory) 눈으로 보는 정치경제(교원 Allstory) 어린이 지식 그림책@통(웅진다책) 처음 만나는 공공장소(창비) 그래서 이런 지명이 생겼대요(길벗스쿨) 재미있는 한국지리 이야기(가나출판사)

* 교과관련도서는 실물을 직접 살펴보고 목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물을 보기 용이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장서 중 선정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전집 -

책정보 (전집)	관련 단원	
	생활 속 사회탐구 플러스 (그레이트북스)	01 계절 만나무 삼거리의 사계절 06 지도 해적 선장의 보물 지도 08 지형 우리 땅 구석구석 09 지형 산남고물 건너 한강 가는 길 13 자연재해 비구름, 비커! 25 이동 수단 바퀴에서 우주선까지 26 의사소통 수단 더 빨리 더 빠르게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교원Allstory)	01. 지리란 무엇일까? 02. 지도를 읽어볼까요? 03. 기후와 날씨는 다르다고? 04. 사계절은 어떻게 다를까? 12. 북적북적 도시가 생겨난다고?
	눈으로 보는 통합교과 (교원Allstory)	2. 지도 3. 촌락과 도시 5. 날씨와 기후 8. 의사소통 10. 교통과 통신 16. 자연재해
	눈으로 보는 정치경제 (교원Allstory)	23. 촌락과 도시는 어떻게 다를까? 24.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위대한 유산 한권으로 읽는 교과서 (한국퍼킨스)	04. 우리 땅
	탄탄 우리문화 (여원미디어)	일상살이 : 남이네 마을에도 송이네 마을에도 관과 장이 : 옛날에도 있었을까?
	또랑또랑 사회탐구동화 (한국차일드아카데미)	1. 계절과 생활 2. 기후와 생활 3. 지도그리기 4. 지도읽기 5. 지형 11. 자연재해 30. 통신 31. 교통
	어린이 지식 그림책@통 (웅진다책)	사회 지리 영역 전권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단행본 -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미국초등학교 배우는 지리 (앤 제만, 케이트 켈리 지음/창해/2006)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고장의 위치 2. 지도에 쓰이는 약속
	어린이 비주얼 과학 - 지도 (테버러첸슬러 지음/이충호 옮김 /럭스키즈/2005)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고장의 위치 2. 지도에 쓰이는 약속
	일과 도구 (권윤덕 지음/길벗어린이/2008)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3.우리 고장의 모습 4.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우리동네 슈퍼맨 (허은실 지음/이고은 그림/창비/2014)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4.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알면 보물 모르면 고을 지도 (양대승 지음/장효원 그림/아르볼/2014)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1. 우리 고장의 위치 2. 지도에 쓰이는 약속
	맛있는 과학 33 : 자연재해 (태영경 지음/진주 그림 /주니어김영사/2012)	1단원 우리가 살아가는 곳 3.우리 고장의 모습
	옛사람들의 교통과 통신 (우리누리 지음/민재희 그림 /주니어중앙/2011)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2.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 (박영란 지음/단별 그림/아르볼/2014)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2.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우리는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 (권영인 지음/청솔/2005)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2.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달구지랑 햇불이랑 옛날의 교통통신 (햇살과나무꾼 지음/김주리 그림 /해와나무/2006)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2.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교과서와 함께 읽어요

- 3학년 1학기 사회 관련도서 : 단행본 -

책 정보 (단행본)		관련 단원
	바퀴에서 우주선까지, 연기에서 인터넷까지 (청동말굽 지음/민은정 그림/북멘토/2007)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2.이동과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
	깜짝 과학이 이렇게 쉬웠어 4 : 교통수단편 (개리 베일리, 스티브 웨이 글/정일문 그림 /윤소영 옮김/주니어랜덤/2007)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3.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깜짝 과학이 이렇게 쉬웠어 11 : 해상교통수단편 (개리 베일리 지음/윤소영 옮김/김부일 그림 /주니어랜덤/2008)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3.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과 의사소통 수단
	깜짝 과학이 이렇게 쉬웠어 13 : 통신편 (개리 베일리, 스티브 웨이 지음/강준구 그림 /윤소영 옮김/주니어랜덤/2008)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 4.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
	처음 만나는 공공장소 (권재원 지음/창비/2014)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 1. 우리 고장의 중심지
	그래서 이런 지명이 생겼대요 (우리누리 지음/이경석 그림 /길벗스쿨/2011)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 3. 달라지는 중심지의 모습
	재미있는 한국지리 이야기 (이광희, 주다현 지음/김영랑, 권성호 그림 /가나출판사/2014)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 1. 우리 고장의 중심지
	초등지리 생생교과서 (지호진 지음/이창섭 그림/스콜라/2006)	저학년 사회 일반
	쉬운 사회 그림책 1 (이기규 지음/심윤정 그림 /주니어김영사/2014)	저학년 사회 일반
	초등 저학년 사회 사전 (황은희 지음/미국희 그림/스쿨로드/ 2011)	저학년 사회 일반



온라인 만화가 1세대로 불리며 자신의 누리터 주스이기도 한 강풀이라는 별명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다. 본명은 강도영으로 2002년 Daum에 '영화야 놀자' 만화연재를 통해 본격적인 작가로 데뷔하였다. 가슴따뜻한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내는 그는 대중들로 부터 큰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연극, 영화 등으로 리메이크되었고 또 현재 진행중이다. 그 후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엽기적인 소재(구토, 똥 등에 얽힌 이야기)로 그려진 『일쌍다반사』로 강풀은 인터넷 만화가 1세대로 불리며 네티즌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 출처 : yes24 작가스캐-



놀이로 따뜻함을 배우다.

(얼음 땀!/강풀 지음/웅진주니어/2014)

서울청계초등학교 박영혜

우리시대의 대표 만화가 강풀의 두 번째 그림책이다. 이번 작품에는 전작 『안녕! 친구야』에서 보여줬던 따뜻함이 배가 되어 담겨있다. 두 작품은 모두 그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 역시 면지부터 “아빠 어렸을 적에는 말이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했을 놀이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학교가 끝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동네에 삼삼오오 모여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신나게 놀았던 우리들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기성세대가 읽으면 추억이 새록새록 생기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외할까? 아마도 이야기가 끝나고 뒷면지에 나오는 그림 속 아이와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안타깝게도 이런 놀이문화는 없다. 놀이로 인간관계를 익히고 사회의 모습을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버리고 학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놀 친구가 없어 혼자만의 놀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놀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놀이마저 입시에서의 경쟁의 모습 그대로다. 함께 놀고 즐기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친구는 따돌리고 끼워주지 않으며 놀이에서 마저 이기려고만 한다.

얼음땀을 하다 구석에서 얼음이 되어버린 아이. 놀이가 끝나도 친구들은 아무도 그 친구를 찾지 못한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혼자 남겨진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몸은 진짜 얼음이 되어버려 꼼짝할 수 없다. 그때 찾아 온 친구. 바로 짝두기다. “땀!” 비로소 아이는 얼음에서 풀려난다. 얼음이 된 친구를 구하러 오는 책 속 “짝두기”. 그런 아이가 우리 아이들 놀이 문화 속에는 없다.

평소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만화로 담아내려는 작가의 의식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라진 놀이문화를 찾아주고 싶다는 작가의 소망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선명한 테두리선 그림이 매력적인 『얼음 땀!』 그림책. 작가 특유의 따뜻함이 이야기 속에 잔뜩 배어있는 따뜻한 호평같은 그림책이다. 호호 불면서 끝까지-마지막 면지까지- 읽다보면 마음 한가득 따스함이 배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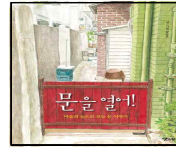


1. 재미있는 놀이 알아보기
2. 부모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 들어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제목/출판사/출판년도)
굴렁쇠랑 새총이랑 신명나는 옛날놀이/해와나무/2007
엄마 어릴적에/좋은책어린이/2012



정독도서관 부설 서울교육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면서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워 왔으며 그 꿈을 이룬 작가 황동진은 『우리 는 학교에 가요』와 『문을 열어!』 두 권의 책을 냈다. 그의 작품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세심한 시선이 느껴진다. 아이 뿐만 아니라 어른도 좋아할 수 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그림과 슬며시 웃을 수 있는 글, 저자의 다음 책이 기다려진다.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자!

(문을 열어!/황동진 지음/낮은산/2014)

서울송곡초등학교 유승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많은 것 중 하나, 셀 수 없이 많이 오고 갔던 그것.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문’이다. 문만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있을까? 다양한 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책은 돋보기로 관찰하는 듯 작가의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문, 낮은 나무 문, 나쁜 기운을 막아 주는 사천왕문, 강아지가 드나드는 문, 은은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동네 작은 슈퍼 유리문, 따뜻한 불빛과 함께 기다리는 누군가가 안에 있을 거 같은 소담스러운 문까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이 있다. 작가가 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뜻함, 정겨움이 있다. 읽다 보면 입가에 조금씩 머물던 미소가 얼굴 가득 번진다.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저 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문을 이제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주위에 모든 것이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저절로 알 수 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폴란드 여류작가인 이보나 히미엘레프스카의 작품들이 언뜻언뜻 눈에 스쳤다. <눈>, <파란막대 파란상자>, <네 개의 그릇> 하나의 주제 혹은 소재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구성이 <문을 열어!>와 흡사했다. 수채화 느낌의 책표지와 삽화는 이 책을 한층 더 정겹게 만들고 문의 종류에 따라 삽화의 크기도 달라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우리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마음 역시 그러하다. 마음의 문을 열면 타인과 만나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다. 작가는 ‘문을 열어!’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리고 서로의 따뜻함을 나눠 보라고 말하고 있다.



1. 각각의 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문을 열면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을까? 생각하며 읽어보기
2. 내가 들어가고 싶은 문을 상상해서 대문책으로 표현하기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열려라! 문 / 박정선 / 비룡소
문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국사 / 청동말굽 / 조선북스



한국고전 - 옹고집전

조선시대 작자와 연대 이상의 판소리계열 고전소설이다. 불교적인 설화를 주제로 한 풍자소설로 판소리 12마당의 하나였다고는 하나 판소리로는 전해지지 않는다. 정확한 창작연대는 알 수 없지만 돈에 욕심이 많은 양반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후기로 짐작하기도 한다.

옹고집전은 판소리게 소설 중에서도 줄거리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며 무엇보다 신중 부호들이 신분이 상승할수록 패륜적 행위를 일삼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부호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깨트려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커져 이런 시대상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

출판사별 옹고집전

출판사별 책의 특징

	차영덕 등저 보리	겨레아동문학선집 26권이다. 겨레의 얼을 보존하기 위한 가치있는 책을 많이 내는 보리 출판사의 또하나의 시리즈 중 하나. 우리나라 풍자문학의 큰 획을 그은 흥부전과 옹고집전을 하나로 엮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책의 말미에 원본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 어린이를 위한 책은 아니지만 원본을 원어 그대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옹고집전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 이 책으로 읽어도 어린이들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배수인 글 휴이님	「역사로 통하는 고전문학」 시리즈는 주제와 관련한 제목을 붙이는데, 옹고집전 역시 「탐욕을 버리다」라는 제목을 통해 결말을 예측할 수 있다. 책 서두에 옹고집전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에 대해 설명하고, 중간 중간 옹고집전의 근원설화와 부적 등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원전의 줄거리를 대부분 담았으며, 가독성이 좋게 편집하여 고학년이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이정원 글 두산동아	두산 동아 “창 좋은 우리 고전” 시리즈는 전공자가 쉽게 풀어 써서 우리 고전을 중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이 읽기에 어렵지 않다. 노란 표지에 심술이 먹지덕지 붙은 옹고집의 모습이 손길 이 간다. 책 끝에 옹고집전과 비슷한 「장자뚝 전설」을 소개하면서 옹고집전과 같은 점, 차이 점등을 알려 주어 두 이야기를 비교하여 어린이들이 더 길게 사고 할 수 있다. 서양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키투지와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박철 글 창비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 여덟 번째 권으로, 현재 전하는 11종의 이본을 참고하여 시인 박철이 판소리 가락의 울문적 문체로 옛 어른들의 풍자를 숨쉴 있게 살려낸 작품이다. 문장이 사실주의 3-4음절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술술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 조해란씨의 코믹한 삽화 또한 읽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품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이상교 글 정영	빛나는 우리고전 4번째 권으로 저학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이다. 옹고집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과정 등 줄거리가 많이 생략되긴 했지만 옹고집을 비롯해 전체적인 그림이 익살스럽게 잘 표현됐다. 고전을 읽기에 부담스러운 어린이가 가볍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다.
	김희경 글 웅진주니어	재미만만 우리고전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고전을 아이들이 쉽게 읽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원전을 잘 살려내기 보다는 고전을 재미있는 동화형식으로 각색하여 들려주고 자칫 아이들에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해설 등은 따로 실지 않았다. 원전의 줄거리에만 충실한 책이다.

작가소개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돈은 많은데 온갖 나쁜 일을 일삼는 옹고집의 이야기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하인들에게, 심지어 병든 어머니에게도 몹쓸짓을 일삼는다. 이러한 옹고집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가 옹고집을 혼내주기 위해 벗짚으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내보내고 결국 옹고집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 가짜 옹고집에게 자리를 내주고 쫓겨나 수십년 세상을 돌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옹고집은 결국 착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이야기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옹고집과 옹고집 부인이 절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다.

옹고집전 줄거리



외국고전 - 80일간의 세계 일주

작가 쥘 베른은 11세 때 평소 연모하던 사촌누이에게 산호 목걸이를 선물하기 위해 몰래 인도행 선박에 오를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모험을 좋아했다. 또한 그의 상상력은 초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다. 그리하여 그의 작품은 SF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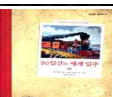
이 책의 특징은 원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주인공을 방해하거나 돕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독자의 재미를 더한다. 그것은 그가 작품을 위해 각 종 신문, 정기간행물, 백과사전, 모험가의 글, 과학자, 지리학자와 나는 대화 등을 기록한 노트만 해도 2만권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탄탄한 밑 작업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초판 표지>

출판사별 80일간의 세계 일주

출판사별 책의 특징

	김석희 옮김 열림원	빨간색표지가 인상적인 책이다. 열림원에서 출판하는 쥘베른 컬렉션 4권이다. 가장 완역본에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평가받는 책이다. 책 속의 삽화도 원전의 삽화 그대로 실고 있어 작품의 맛을 더해준다. 비록 성인용 도서로 출판되고 있는 책이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 독서력이 좀 있는 어린이가 읽기에도 무리가 없다.
	이현경 옮김 대교출판	대교출판사의 눈높이 클래식은 고전을 완역본으로 출판하는 시리즈이다. 열림원의 『80일간의 세계일주』와 번역이 같고 그림은 원작의 작품과 똑같이 실었다. 열림원의 책에 비해 문단을 짧게 하여 더 이해하기가 쉽다. 고전을 읽고자 하는 고학년 어린이들에게 권장할만 하다.
	윤진 옮김 비룡소	비룡소 클래식은 고전은 재미없는 책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좋은 작품을 엄선해 정성을 다해 번역한 시리즈다. 그래서인지 읽어나가는데 막힘이 없다.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그린 그림에 칼라를 입힌 것이 원본과는 다르지만 삽화의 설명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점이나 내용은 원전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김주열 옮김 창작과비평사	1,2권으로 구성했고, 완역본에 가깝게 번역되었다. 1999년에 처음 나온 책이라 초판년이 좀 오래됐지만 탐험을 떠나는 책의 분위기를 살리는 고전적인 삽화가 돋보인다. 다만 오래전 번역한 책이라 그런지 다른 출판사의 책과 비교해 문장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송무 옮김 푸른숲	푸른숲 청소년 정경다리 클래식은 발표당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오는 대신, 작품의 재미와 맛을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읽고 소화하기 쉽도록 다듬어 놓은 펍컨 리더스 시리즈를 원전으로 삼고 있다. 간결한 문장과 컬러 삽화로 초등고학년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만하다. 본문 뒤에는 줄거리, 작가 소개, 작품 속 장소나 역사적 사건, 시각 자료 등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김주경 옮김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클래식 37번째 시리즈로 작가에 대한 소개, 원작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 작품의 배경지식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원전에 실린 삽화를 설명과 함께 그대로 실어 아동도서이지만 내용과 느낌에 있어 부족함이 없다. 총 3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험이야기를 좋아하는 고학년에게 추천할 만하다.

작가소개

(쥘 베른-1828~1905)

프랑스 서부의 항구도시 낭트에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살던 낭트는 180 초 프랑스 최대의 무역항으로 쥘 베른의 모험성을 키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로빈슨 크루소」나 「스위스의 로빈슨 가족」 같은 모험 소설을 즐겨 읽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베스트 셀러 「기루를 타고 5주 일」 등을 탄생 시켰다. 정밀로 바쁜 생활속에서도 꾸준한 여행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다. 그의 작품의 결정체는 「신비의 여행」으로 역사, 과학, 탐험, 첩보 등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대작이다. 그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작품을 임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의 사실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1837년에 탄생한 모험소설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필리우스 포그는 그가 다시는 리튬 클럽에서 어느 날 80일동안 세계일주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말에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한다. 그날 아침 고풍한 파스파르투리는 하인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출발한다. 처음엔 무리 없이 평탄하게 여행이 진행되는 듯하지만 인도에서 대륙을 간통하는 철도가 미완성이 되어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그곳에서 나중에 아내가 되는 아우다를 만나기도 한다. 그의 하인 파스파르투의 실수로 지체되기도 하고 기차를 놓치기도 하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런던에 도착하지만 5분 늦게 된다. 포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였기에 경도 1도를 옮길 때 마다 4분씩 단축되어 사실 이를 일찍 도착하게 된 것을 파스파르투가 알아 차리고 주인을 데리고 리튬클럽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 7분전이었다. 결국 이기가 되었다. 읽는 동안에 함께 여행을 하는 듯 적당한 서스펜스와 긴장감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하게 된다.

북토크북은 서울초등학교 사서교사 8명의 연구모임입니다

❖ 책의 표지 그림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다음호는 3월에 발간됩니다.